

명치통증·발열·황달 ‘담관결석 3대 증상’ 꼭 기억하세요



건강 바로 알기 내시경적 담관 결석치료

임성욱

KS병원 소화기내과 원장

올해 팔순이 되는 황달자님(여, 가명)은 팔순 잔치에서 평소와 달리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상복부 불편감과 소화 불량에 있어 한 두 끼 굶고 나아지는 양상이었으나, 식후 다시 반복되는 명치 부위 심한 통증과 함께 눈이 노랗고 소변이 진해지기 시작하자 병원을 방문하였다.

혈액검사 및 복부 CT를 시행하고 나서 지속적인 복통과 황달의 원인으로 담관에 작은 담석을 진단받았다. ERCP(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라는 특수 내시경 시술을 권유받았다.

담관은 담즙의 이동 통로로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나뭇가지처럼 모아 총담관이라는 구조를 통해 췌장 머리를 통과하여 십이지장 중간에 유두부라는 구조로 이어진다. 주로 우측 간에서 모아지는 우측 간내 담관과 좌측 간에서 모아지는 좌측 간내 담관이 합류하여 간 밖으로 나오는데 이를 간외 담관이라고 한다. 이 부위에 쓸개관을 통해 담낭(쓸개)이 연결되어 담즙을 저장했다가 식후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담관 결석은 담낭에 생기는 담석처럼 담즙성분 변화로 인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생기는데, 이것이 담즙의 통로를 막아 통증이나 급성 소화 불량을 일으킨다. 또는 담즙 배출이 안 되어 간 손상을 일으키거나 혈액으로 역류되어 황

고령화·서구식 식생활로 환자 증가
담관 결석·담관암·췌장암 등

담관폐색질환 치료는 ‘ERCP’ 필수
특수내시경·방사선 이용 고난도 시술

달이 발생할 수 있다.

담낭에 생긴 결석은 약 80% 정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보거나 담관에 생긴 결석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증상으로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결국 폐색 증상을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담즙 정체는 세균 감염이 동반되어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데, 명치 통증과 함께 발열, 황달 증상들이 담관염을 의심하는 대표적인 3대 증상이라고 한다. 심한 담관염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질환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췌담도 내시경 클리닉이 있는 병원을 조기에 방문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서구식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담관 결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담관 결석으로 치료 받은 환자는 2013년 3만 5458명에서 2023년 6만 246명으로 10년 동안 70%나 증가했다. 연령별로 80세 이상 28%, 70대 27%, 60대 21%를 차지했으며, 100세 이상에서도 ERCP를 통한 담관 결석치료를 받는 병원이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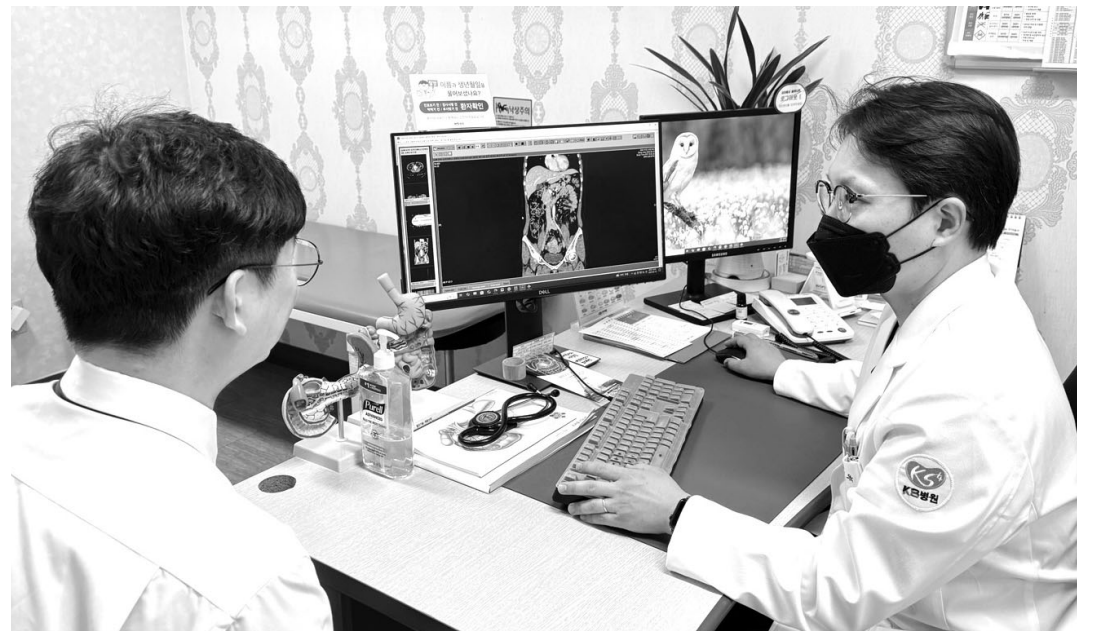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는 담관 결석은 세균감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색의 색소성 담석이 대부분이며 담관 결석을 치료한 환자의 약 15%는 담관 결석

재발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에 따라 약물 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젊은 연령에서도 담관 결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고지방의 식사를 자주 하거나 비만 또는 심한 다이어트 후에 발생하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방사선 비투과성으로 CT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복부 초음파나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담관 결석은 종종 요로 결석과 혼동되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요로 결석처럼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 된다거나 췌석기로 돌을 부셔서 치료하지는 않는다.

담관 결석이나 담관암, 췌장암 등 담관 폐색 질환의 치료는 ERCP가 필수적인 치료이다.

담관 결석의 치료는 주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을 통해 시행된다. ERCP는 특수 내시경과 실시간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고난이도 시술로, 특수 내시경을 십이지장 중부까지 삽입하고 담즙이 배출되는 유두부를 통해 담관이 췌관을 조영제를 주입해 검사하여 구조 이상이나 담관 결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유도 철사를 통해 바스켓이나 풍선 기구를 이용하여 담석을 제거하거나 담즙 배액 스텐트 삽입으로 담즙을 배액시키는 등의 치료를 할 수 있다.

ERCP는 시술시간이 30분~1시간 이내로 빨리 끝나고 비교적 비침습적인 치료로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담관 결석은 보통 담낭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담낭염이 있거나 담낭 결석이 있는 경우에 추후 재발을 막기 위해 담낭절제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담낭 수술이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는 췌담도 센터가 갖추어진 전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좋다.



KS병원 소화기내과 임성욱 원장이 환자에게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S병원 제공〉

ERCP의 가장 큰 장점은 진단과 치료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술이 어렵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숙련된 전문의에 의한 시술이 필요하다.

현재 ERCP는 담관 질환이나 췌관 질환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술로 이미 자리 잡았다. 담석에 의한 담관염, 췌장염을 비롯하여 췌장암, 담관암, 바터 팽대부 암 등 담관이 막혀 담즙 배출이 잘 안 되는 질환들에서 ERCP가 필요하다.

개복 등 크게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 단 시간에 최소 침습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 난이도가 높고 드물게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고도로 숙련된 치료 내시경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시술 관련 합병증은 경미한 췌장염(15%)에서 심한 췌장염이 있을 수 있고, 출혈(1%)이나 복통, 드물게 천공(0.1%)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KS병원은 3000례 이상의 풍부한 ERCP 경험이 있는 치료 내시경 전문의와 함께 간담체 외과 전문의, 복부 질환 전문 영상의학과 전문의들 간에 유기적인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신 내시경 장비를 통해 대학병원 수준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K-바이오헬스’ 전진기지로 도약한다

복지부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

화순전남대병원이 정부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전남바이오헬스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바이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화순전남대병원이 핵심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사업비 약 32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11억원)을 들여 창업기업 발굴, 기술개발, 임상, 인증, 시험평가 등 바이오 헬스 전 주

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6개 컨소시엄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연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구체화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남바이오헬스원과 협력해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준공된 미

래의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면역·백신 치료제 등 차세대 암 치료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협력 성과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의료혁신센터는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과 생산 연계를 강화하는 첨단 복합 공간으로 앞으로 K-바이오헬스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민정중 병원장은 “기업, 병원, 연구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대병원, 환자 점점 부서 직원 환자경험 관리 교육

조선대병원이 지난 7일부터 환자 점점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경험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8회에 걸쳐 11월18일까지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또 교육은 환자 점점 부서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한 환자 응대 역량 강화 및 조선대병원만의 차별화된 환자중심 의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객만족팀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은 웰인사이트 서효정 대표를 초청해 ▲환자경험, 환자경험 리더의 주요 역할 ▲심평원 환자경험평가 최신

동향 ▲부서별 매뉴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조용진 고객만족팀장(정형외과 교수)은 “고객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점점부서 직원 간에 소통과 공감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환자 응대 서비스 교육과 더불어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리더십 안전 라운딩’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대병원, 5월 가정의 달 맞아 환자 위로 행사

전남대병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정 신 전남대병원장은 지난 8일 최명기 간호부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보호자가 없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인 8동 9층을 방문해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패유를 기원했다.

전남대병원 본·분원의 간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날을 맞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세 이상 환자 258명에게 아픈 마음을 위로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2일 6

동6층 어린이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아들에게 어린이날 기념 선물을 다과를 전달했으며, 지난 달 29일 6동1층 로비에서 약 100여명의 환아 및 가족들에게 장난감 만들기 부스, 그림그리기, 어린이 음악회 등을 열었다.

정 신 병원장은 “가정의 달이지만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환아들에게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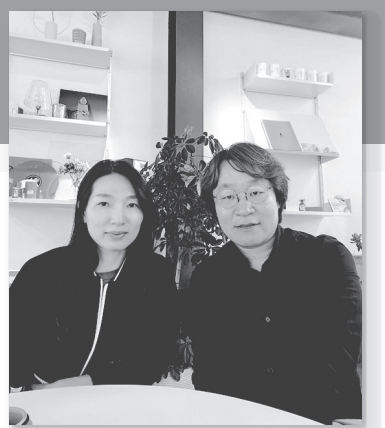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